



큰날개 주일예배

	전통예배 오전 9:00	축제예배 오전 11:00	젊은예배 오후 1:30
찬양과 경배	예배로의 부름 찬양 9장	예배로의 부름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노피어 찬양단 찬양 나는 주님께 속한
고백과 헌신	교독문 6. 시편 10편 신앙고백 찬송 440장 기도 정영아 집사	기도 이승길 장로 성도의 교제	기도 최민지 자매 광고 및 환영
말씀과 결단	요한복음 3장 1~3절, 14~17절 (신약 145)		
	부 설교 담임목사		
축복과 파송	봉헌 320장 축도 담임목사	봉헌 주님의 마음을 축도 담임목사	봉헌 원하고 바라고 축도 담임목사

공동체예배 15:00
벤전 4:10 선 설교 담임목사
수요기도회 19:30

가정 예배

2월 예배위원	
[다음주 기도]	[봉헌]
젊은예배 김성국 집사 축제예배 강애진 집사 젊은예배 한상익 집사	전통예배 김현숙 이선희 축제예배 김영일 라종선 강애진 김영미 김영숙 젊은예배 김민지 옥임석
3월 봉헌위원	
[전통예배]	[축제예배]
김해숙 정현숙	김성국 임경진 서덕이 나승미 정기숙



교회 소식

이번주 소식

- 오늘 공동체 예배 때는 한가족 환영식이 진행됩니다. 축가는 청년A-4, B-5목장입니다.
- 양육과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2월 셋째주일 (2/21)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양육반, 제자학교 - 임영미 팀장 / 세계비전제자대학1, 2학기 - 나승미 팀장
양육반 - 주일 오후 4시 30분
제자학교 - 주일 오후 4시 30분
제자대학1학기 - 목요일 오후 8시
제자대학2학기 - 화요일 오후 8시
- 리더캠프가 2월 27일(토)에 회복캠프가 3월 6일(토)에 진행됩니다. 미리 날짜를 확인하여 훈련 받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 바랍니다.
- 2021년 새봄사역을 위해 목장에서는 미리 기도하며 행복모임 구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날개 전도집중훈련이 3월 16일(화)부터 19일(금)까지 온라인 실황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1차등록은 3월 4일(15만원)까지, 2차 등록은 당일(17만원)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신청 및 문의 : 나승미 국장)
- 2021 두날개 북방 아웃리치가 5월 10일 (월)부터 14일(금)까지 진행이 됩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2월 26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 유한나 팀장)

[동정]
박신정 성도 부친상 - 2월 3일(수)

다음주 봉사

[청소]
본당 : 여성C-2목장(강미령 목사)
준2층,계단 : 여성D-2목장(나승미 목사)
2층 : 여성B-2목장(박현숙 목사)
3층 : 여성A-1목장(서덕이 목사)
비전홀, 멀티룸, 화장실 : 청년공동체

새가족 섬김이

이예스더 자매 (섬김이 : 박진경 자매)
박숙이 성도 (섬김이 : 이미정 집사)
박혜숙 성도 (섬김이 : 김미정 집사)
송철영 성도 (섬김이 : 박원찬 집사)
김영옥 성도 (섬김이 : 김향화 성도)
김학병 성도 (섬김이 : 김영일 집사)
김우신 형제 (섬김이 : 이광수 간사)



금주 도고기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한 기도

1.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2. 교회 사역을 위해서

- 사역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레바퀴의 삶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기도로 무장하여 봄사역을 준비하게 하소서.
- 코로나가 하루 속히 종식되게 하시어 온 나라가 회복되고, 안정을 찾게 하소서.

3. 선교사를 위해서

- 열방에 파송된 선교사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러시아로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서 주어진 사역들 순조롭게 잘 감당케 하소서.

성도를 위한 기도

1. 옥임석 형제

- 제가 이번에 예배지원팀 사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2. 윤종훈 집사

- 어머니께서 어깨와 팔 통증으로 목디스크 진단을 받고 몇달 째 치료 중이신데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 제자학교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먼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환경을 뛰어 넘어 성령님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감당하며 훈련을 통해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첫째,

둘째,



금주의 감사

- 두날개 컨퍼런스 은혜 안에 마무리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제자가 되어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 대면예배가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선포되는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 하나님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니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 사랑하는 아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등학교 생활도 지켜주시고 장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부담스러운 거듭남

[요한복음 3장 1~3, 14~17절]



작은날개 목장나눔

자신을 지키지 못한 삼손

[사사기 14:1~9]

W

WELCOME

환영

..... ICE BREAK를 해봅시다.

W

WORSHIP

경배

.....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시간을 성령님께 의뢰하며 기도합니다.

W

WORD

말씀

..... 결혼 상대자를 선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 재산 / 성격 / 가정환경 / 신앙 / 외모 / 형제자매 / 학벌 / 건강 / 식성 / 언어습관 / 직업 / 능력 / 리더십 / 기타

회자로 보냈습니다. 안디옥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었습니다. 교회가 잘 되고 있는데 바나바는 몸소 다소까지 가서 바울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위대하게 세워주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자기가 으뜸으로 높아지려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남을 높여 주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인은 동업이 안된다고 합니다. 동업하는 사람을 세워주고 도와주고 인정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나바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사회가 더 크게 발전하려면 바나바가 많아야 합니다. 가정에도 바나바가 있어야 잘됩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바나바가 되어 제자를 양육하면 국가의 미래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반드시 1년에 세 차례(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성전예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만부득이 하여도 한번은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에 와서 50일이 지난 오순절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순례자들도 있었지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여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난 사람,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고 바나바가 자기의 발을 팔아 필요에 따라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가 발이 있을 때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행 4:37). 예루살렘 교회는 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바나바의 마음이 감동해서 발을 팔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전달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사도들의 발 밑에, 즉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자기의 존재를 사도들의 발 밑에 둔 것입니다. 자기의 재물, 자기의 재산을 바나바처럼 사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바나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많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제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많으면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바나바는 부자여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형편대로 이웃과 화해를 이루어 하나님의 작품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조화를 만들어 내는 사람

오케스트라에는 여러 종류의 악기가 있습니다.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 어떤 것은 시끄러운 소음인데도 전체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면 심성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음악이 됩니다. 악기만 아니라 사람도 그렇습니다.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약에도 감초가 다 들어가는 데 약의 맛을 내기도 하지만 약효를 높여 주는 역할도 합니다. 약방의 감초 같은 사람은 어떤 모임,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갖게 합니다. 반드시 많이 배워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이 잘 생기거나 건강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약방의 감초처럼 비싸지도 않습니다. 평범합니다. 결코 어려운 사람이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바나바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을 들어내지 않고 배후에서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위로하며 용기를 갖게 하여 위대하게 쓰임 받게 하고는 자기는 조용히 사라지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교회는 계속 놀라운 능

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사람들의 가치관을 바꿔 놓았습니다. 요셉도 크게 변화되어 구브로의 밭을 팔아 헌금했습니다. 문장의 어순을 보면 요셉이 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니 요셉을 바나바(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권위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때 그는 구브로의 밭을 팔아 헌금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지만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세워주어서 바나바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후에 그를 사도라 부르기도 했습니다(행 14:14). 요셉이 바나바가 된 것은 그의 가문이나 능력,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독교의 대적자였던 사울을 귀한 일꾼으로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은 바나바를 먼저 세우셨고 그에게 성령충만하게 하시고 온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사울, 후에 바울 사도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이방 땅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이 많이 믿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온 교회가 인정하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목

Q QUESTIONS 질 문

1. 삼손이 덤나에서 만난 여인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2절) 부모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3절) 이 일은 무엇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까?(4절)
2. 삼손은 무슨 일을 합니까?(6절) 며칠이 지난 뒤에 그 자리에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8~9절)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10~20절 참조)
3. 나실인이던 삼손은 금지된 일을 행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돈을 사랑함 / 세상의 쾌락을 즐기 / 남의 것을 빼앗음 / 권력을 추구함 / 거짓말과 속임수 / 중독에 빠짐 / 위선적인 신앙 / 여가생활을 하느라 신앙을 지키지 않음 / 자기 연민에 빠짐 / 사람들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함 / 자녀에 매임 / 기타
4. 내가 특히 극복하기 어려운 유혹은 무엇입니까?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정해보고 서로 도고기도 합시다.

W WITNESS 증 거

이번주 행복모임의 진행현황과 베스트와의 관계맺기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W WORK & PRAYER 기 도

돌봄이 필요한 목장가족이 있는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 1) 문제를 맡기며 기도
- 2) 베스트와 행복모임을 위해 기도
- 3) 치유와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
- 4) 축복기도



순종하면 만들어 쓰십니다

- 청년 A-1목장 최용환 집사 -

안녕하세요 청년 A-1목장 최용환 집사입니다.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에 대해 많은 실망을 했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미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아무런 꿈도 계획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대학에 가게 되었고 거기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이전의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한 채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저는 예일교회에 오게 되었고 처음으로 두달간 양육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교 단체에서 여러 훈련을 받아보았던 저는, 큰 변화가 없는 자신을 보았고 훈련을 향한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변화는 제자학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자학교에서 받은 훈련은 저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었고, 수레바퀴는 저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이었습니다. 훈련 중 자주 가치관이 충돌하였고,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부정해야 했습니다. 200%긍정이라는 말을 받아들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학교를 졸업하고, 리더 캠프를 통해 떨기나무에 떨어진 꺼지지 않는 비전의 불꽃이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에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저의 비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비전이 제가 가장 힘들 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렇게 첫번째 훈련을 졸업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목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되어서도 저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장식구들을 위해 많이 기도하지 못했고 자신의 문제에만 허덕이

며 목장식구들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사람과 있을 때 늘 마음속에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불안감은 목자가 되어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데 있어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놓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저의 약점을 하나씩 해결해 가셨습니다. 그 후 다시 목장을 세우기 위해 셀라이프를 일으키려 했지만 이미 목장식구들의 마음은 식어 있었습니다. 목장식구들을 위해 목장을 해산하고 목장을 그만 뒤야하나 고민하였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목장을 내려놓기엔 제겐 재생산의 비전이 너무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큐티를 통해 다시 좋은 본을 받아야함을 깨달았고 저는 잘 세워져 있는 목장을 찾아가 인턴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목장 안에서 함께 모이며 목장모임과 행복모임을 어떻게 인도 해야하는지, 어떻게 목장식구들을 돌보고 섬겨야 하는지 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웃리치를 다녀오며 왜 세계비전이라고 말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 인도하는 행복모임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것을 깨달았고 행복모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인턴이 되고 저는 새롭게 바뀐 두달간 프로세스에서 제대로 훈련 받고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세계비전 제자대학 1학기를 몇 번이나 떨어졌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저 또한 아웃리치를 갔다 왔지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저는 세계비전 제자대학 1학기를 떨어질 때마다 세계비전 제자대학 2학기를 꿈꾸며 다음엔 꼭 합격하리라고 다짐해왔습니다. 이윽고 1학기를 통과하였을 때 첫 취직 때보다 기뻐했습니다. 세계비전 제자대학 2학기는 이만큼이나

제게 기대가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고 수레바퀴도 어느정도 자신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바로 수레바퀴에서 전도를 인정 받으려면 백지전도를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지전도가 처음엔 참 두려웠습니다. 이전1학기를 받을 땐 전도지한 장을 못 줘서 전도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졸업을 앞둔 재생산 사역자였습니다. 마음을 고쳐먹고 어떻게든 수레바퀴를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처음 전도를 하러 나갔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마음을 주셨고 다짜고짜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같이 백지전도를 나가자고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친구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백지전도를 나가게 되었고 처음의 두려움은 어느새 사라지고 공원에서 만난 한 아이를 영접시킬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도가 안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저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루에 한명은 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무작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나가자고 권유했고 감사하게도 전도팀을 결성하여 전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번에 저는 두번째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졸업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처음 졸업을 할 때는 여전히 사람을 어려워하고 관계가 서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졸업을 맞이하는 지금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처음 졸업할 때와 이번에 졸업한 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면 만들어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비전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졸업 시험을 보고 졸업 사정회를 할 때 저는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무언가에 간절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저 또한 눈물을 흘리며 이 비전을 꼭 이루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재생산의 가치, 제자 삼는 세계비전은 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저의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며 가정이 변화되고 저의 삶이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됨을 체험하였습니다. 두달간 1500비전은 결코 버거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달려갈 분명한 방향이며 저의 삶의 종착지입니다. 힘들어서 잠시 쉬어갈지 언정 결코 이 길에서 도중에 하차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분명한 부르심 앞에 저는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 예일교회를 세워가는 재생산 사역자로 끝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끝으로 함께 달려와준 동역자인 목장들과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었던 목장식구들, 끝까지 부족한 저를 믿고 따라와준 가족들 그리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달려가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제 안에 목자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계속해서 두달간 1500비전을 심어 주셔서 재생산 사역자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으로 세워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완벽한 계획으로 저를 늘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